

돈황 석굴의 벽화

강사 소개



강사: 김혜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아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컬렉션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중국 불교미술과 한국 미술의 외래적 요소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석굴암 주실은 왜 원형당으로 만들어졌을까? -인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와 “An Icon in Motion: Rethinking the Iconography of Itinerant Monk Paintings from Dunhuang”이 있다.

강의 요약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돈황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으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중국 간쑤성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여러 개의 석굴사원 유적이 남아 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막고굴은 4세기에 개착되기 시작하여 14세기까지 조상 활동이 지속되었으며 현재 492개의 석굴에 다양한 벽화와 불상이 놀랍도록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흔히 ‘불교미술의 보고’라고 불리는 돈황 막고굴의 대표 석굴의 벽화를 중심으로 실�크로드를 오갔던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신앙 활동과 예술적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강의를 통해 돈황 석굴의 벽화가 지니는 역사적, 미술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척박한 자연 환경과 다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졌던 석굴 개착과 조상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과 미술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